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성경: 마가복음 5장 25-36절

Tag: 구원, 치유, 전도, 예수님, 믿음, 소망, 사랑

25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26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
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27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
을 대니

28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
러라

29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
니라

30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
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31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32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돌려 보시니

33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니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이다

35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
게 하나이까

36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
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막5:25-36)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이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종교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매우 심플한 메시지, 그러나 무지한 자에게는 믿어지기 힘든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된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대면하면서 믿는 사람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실제로 예수님을 보면서 믿을 수 있으니까, 더 쉽게 믿을 수 있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도 그때(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가 오기를 기다렸다고 하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요8:56)

우리는 아쉽게도 그 시대에 살지 않았으므로 믿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에게는 더 큰 복이 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미래를 소망하고 믿은 믿음, 우리의 믿음을 과거를 상상하며 믿는 믿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20:29)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에 힘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를 믿는 무리가 있었고, 믿지 못한 무리가 있었다. 바로 눈 앞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도 도무지 믿지 못했다. 왜 그럴까? 놀랍게도 왜 하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질투심 때문이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자들이라고 자만했으니까.) 안식일에 일을 했으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고 고집했다.

* 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을까?

첫째 병자에게 첫 번째 구원 사건은 병에서 놓임을 받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곤경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질병은 곤경)

셋째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넷째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섯째 병이 낫게 되는 사람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기 위함이다.(확신)

여섯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구원사역의 핵심이다.

이처럼 치유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핵심적 사역이다. (요즘도 그렇다.)

치유는 현실적 문제이기도 하였고, 여러 가지 목적과 효과가 있다.

치유 사역은 여러 다른 사역과도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치유를 통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 알아보자.

*질병에 대한 현대적 의미

질병은 인간의 곤경에 대한 계시적 사건이다. 질병은 삶의 질을 바꾼다. 질병은 많은 고통을 주는데 육체뿐 아니라 정신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유발한다.

내가 암에 걸린다면 어떻게 할까? 라는 주제로 글을 써 보는 것이 어떨까? 미리 예견한다고 꼭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약간의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요즘들어 세계적으로 소문이 자자하다. 가장 우수한 의료 기술은 미국에 있겠지만, 보편적 의료 서비스는 우리

나라가 더 우수하다. 합리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을 만든 박정희 전대통령께 감사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은 김대중 전대통령.

덕분에 한국인은 수시로 병원과 의원을 찾는다. 의사들의 능력도 수준높고, 간호사들까지 친절하다.(의사들이 다닥다닥...) -복지천국 스웨덴 의사 이야기-수준은 낮고 모르면 공부하면서 주변 의사들과 상의하면서 치료. 5분 안에 한명씩 치료하는 한국과는 판판. 예약후 2주후에 뵙겠습니다. 세금 최소 35%~60%)

분명한 것은 질병이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곤경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오랜 시간을 질병 가운데 지내야 한다.(특히 생활습관병)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모습도 마찬가지다.

오래도록 고생했으며, 가진 재산을 모두 잃었고, 많은 의사들에게 고통을 당했다. 간단한 질병이야 병도 아니지만, 무거운 병은 여전히 요즘도 대동소이하다.(경제적 부담은 줄었지만, 고통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나, 의사는 여전히 환부를 수술하고, 여러 가지 처방하고, 치료기간도 길다.

첨단 기술 때문에 불치병이 많이 사라졌으나 개인적으로 특이한 병도 많아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병원을 찾는다. (양파와 같은 질병-첫번째 질병으로 죽지 않으면 두 번째 질병이 온다.)

과거에 비해서 교회가 감당하는 치유의 영역은 그 양상이 다르다. 과거에는 거의 병원 버금가는 역할을 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아님.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달라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치유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1. 치유와 구원은 밀접한 관계이다.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부러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 하셨다. 핵심적으로 필요하기에.

2. 설령 치유되지 않더라도 구원이 우선이다. (내 은혜가 족하다. 겸손용-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경우만)
3. 인간의 의술로 치유 불가능한 병을 치유한다.
4. 영적인 질병을 치유한다.(귀신을 내어 쫓는 것과 관계있음;귀신과 관계된 질병은 의사에게는 불치의 영역-모든 질병이 귀신 때문은 아님.)
5.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이 치유의 핵심이다.(성삼위 치유)
6. 예수님의 **공감능력과 애정어린 치유(예언적 치유-엘리사)**가 통전적 치유를 가능케 한다. 몸의 치유와 정서적 치유가 따로 있는게 아니다. (사회적 회복, 영적 회복, 지정의의 회복, 경제적 회복, 습관의 회복, 세계관과 가치관의 회복)

*이 예언적 치유는 환자 당사자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치유를 호소해야 하는 조건이 있고, 스스로가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용기도 필요하다.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겸손함과 간절함을 표현해야 함.)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전체가 바로 예언적 치유요, 교회를 통한 치유사역의 전형이다.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은 스스로 주께 왔으며, 과감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믿는대로 행동**에 옮긴 것이다. 이점이 칭찬할만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러 세운 것이다.

혈루병 여인에게도 믿음을 강조 하셨지만, 회당장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셨다.

35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회당장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절망하였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예수님 앞에서 당황하였다. 예수님께 뭐라 말씀 드려야 하나...

질병과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위축되고 소극적이 되며, 두려워하기 마련이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힘이 되어 주신다. 곁에 있어 주신다. 함께 동행해 주신다.

36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회당장과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아픈 사람은 그 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환자 당사자의 믿음을 요구하지 않았다.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갈 수 있는가? 죽어가고 있는데 믿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환자를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 강청, 그의 믿음을 보고 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고 위로 하시고, 믿기만 하라고 힘을 주셨으며, 끝까지 동행하셨고, 방문하셨고, 안수 하셨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가?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갈망하자.

순전한 영혼으로 모든 것 내려 놓고, 염려, 두려움, 죄짐, 자존심, 평판... 세속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순전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돌아온 탕자처럼.

예수님은 아픈 우리를 위로하신다.

감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다만, 예수님께 돌아가자. 돌아와야 할 영혼을 위해서 대신 갈망하고 기도하고 강청하자. 회당장처럼.

예수님이 우리 형편 사정을 아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은총을 베푸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구주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고쳐 주소서.

우리는 이시간 순전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고쳐 주소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영혼을 고쳐 주소서.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치유에 대한 말씀

성경: 마가복음 6장 1-13절

Tag:

1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2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됨이나

3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나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4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5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6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7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8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 것도 가지지 말며

9 신발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10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11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12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막 6:1-13)

1-5절;인간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고향 주민들.

-예수님이 많이 섭섭해 하심.

-치유는 전도에 매우 적절한 매개체였다.

5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전능하신 예수님도 배척하는 분위기에는 어찌하지 못하셨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으신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권능을 베푸실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구원과 치유는 떼레야 떼 수 없는 중요한 관계에 있다.

*믿음이나 사모하는 마음, 증언들은 그 사람 영혼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순전한 영적 반응이다.

*순전한 영적 반응은 영혼의 본능이다.

(순전한 영혼을 더럽히는 것들은? 세속의 영, 배신의 상처(가족이나 연인), 이단의 영, 이념ism:ism이란 가치관과 세계관의 영역을 침범하는 생각, =반면에 christianity=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명사형)

*하나님의 부흥이나 기적은 바로 이런 순전한 영적 반응으로 일어난다.

*+ 전극은 - 전극을 만날 때만 스파크가 일어난다.

*성도가 믿음, 사모하는 마음, 영적 갈망,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등이 있으면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셈.

*믿음을 구원의 필요조건으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믿음은 구원의 피선 조건이다.

*‘구원의 방주에 누구를 태울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 ‘믿음’이다. 이 ‘믿음’의 가능성은 온 인류에게 열려져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 될 수도 믿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으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예정이란? 믿는 자는 모두 구원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살후3:2)

7절~;어느정도 현장실습을 마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예수님.

-둘씩;두 사람이 힘을 합하는 것이 중요함. 기독교 전도의 기본.

-두 사람이 협력하는 것이 핵심.

-권능;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믿음을 휘방하는 세력을 제어함.)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믿어야 한다.

-듣는 천사의 존재를 믿어야 한다. 사람끼리 싸고 치는 것은 사기.

13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귀신을 쫓아 냄;

-귀신들림 현상

-귀신에 사로잡힘 현상 (세상 사람들은 이것만 귀신들림으로 생각)

-사건에 대한 귀신의 프레임이 기억속으로 들어와 무의식 안에 자리를 틀고 있는 것도 일종의 귀신들림 현상으로 나타난다.

-프레임이 형성되는 조건; 사사로운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공동의 목적이 일치할 때 형성됨.

-거짓 프레임에서 자유로운 영혼이 과연 있을까? 그는 철저히 순전하고 정직해야만 한다. 그 또한 거짓말쟁이들에게 휘둘리기 쉽상.

-천사들의 도움이 절심함.

*기름 바름-당시의 보편적 의료행위

-오늘날의 의료행위는 매우 변화함.

- 더 많이 변화되고 첨단화 산업화 될 것임.
- 그러나 귀신들림 현상까지 치유할 수는 없음.
- 의료시스템과 협력하며 진행할 것.
- 어느 순간이든, 치료에 있어서 의사가 아쉬운 부분은 존재함. 그때마다 의사는 하나님께 기도함이 올바름.